

## ◇Button 수기의 조기 수술성적

장원채, 오상기, 나국주, 안병희, 김상형

전남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동맥판폐쇄부전을 동반한 대동맥류 환자에서는 관상동맥 개구부를 이식하여야 하는데 이식후 문합부위의 긴장에 의한 가성 대동맥류의 예방이 중요하다. 이식수기로는 Bentall 수기를 비롯한 Cabrol 및 button 수기 등이 술자의 취향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어떠한 수기가 이상적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이에 연자는 1994년부터 전남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서 대동맥판폐쇄부전을 동반한 대동맥류로 Button 수기에 의한 수술을 받았던 14례의 수술성적을 분석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방법** : 1994년 1월부터 1998년 6월 사이에 대동맥판 및 대동맥류 치환후 Button 수기로 관동맥 개구부들을 이식하였던 14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례에서 인공심폐기를 이용하였고 대동맥궁 및 하행대동맥까지 병변이 진행된 경우와 대동맥박리를 동반한 례에서는 저체온하에서 순환정지 시킨 후 역행성 뇌관류를 시행하였으며 전례에서 냉혈심정지액 및 냉혈을 순행 및 역행성으로 주입하여 심근의 온도가 10에서 15도 사이가 되도록 하였다.

**결과** : 평균연령은  $43.45 \pm 11.01$ 세 였으며 남자가 11례, 여자가 3례였다. 원인 질환으로는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판륜확장증이 6례, 동맥경화증에 의한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가 각각 4례였다. 대동맥판 치환후 11례에서 상행대동맥을 치환하였으며 2례에서 대동맥궁까지, 1례에서 상부 하행대동맥까지 치환하였다. 술 중 대동맥 박리를 동반한 대동맥판륜 확장증을 대동맥판성형술후 대동맥판 폐쇄부전이 호전되지 않아 대동맥판 치환 후 Button 수기를 시행하였으나 출혈로 사망하였다. 술 후 합병증으로는 출혈에 의한 재수술 3례를 포함한 창상감염, 부정맥, 애성 등이 있었다. 추적관찰 중 사망하거나 가성 대동맥류로 재수술을 요한 경우는 없었다.

**결론** : 대동맥판 및 대동맥류의 치환 후 Button 수기를 이용한 관동맥 개구부 이식술은 단기 수술성적의 분석이기는 하나 술 후 관동맥 이식 후 문합부위의 긴장에 의한 가성 대동맥류에 의한 재수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술식 중 하나로 생각된다.

책임저자:안병희 (전남대학교) 발표자:장원채(전남대병원)